

숲을 체험하고 명상도 하고~!

대성여자중학교



싱그러운 봄, 풀도 나무도 예쁘고 싱그러운 새옷으로 멋스러워지는 계절~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님들과 푸른숲선도원학생들은 지난 한달 동안
학교를 아름답게 만들고, 숲체험도 하고,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푸른숲선도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선도원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자연사랑 생명사랑 명상걷기 대회에 참가한 푸른숲선도원들

2007년 4월 22일 대전광역시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한밭수목원에서 건기 명상을 겸한 숲 체험 프로그램에 대성여중 푸른숲선도원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수목원 사방으로 보이는 빌딩들·시청사, 검찰, 법원 건물, 방송국, 수많은 아파트, 미술관, 예술의 전당, 청소년 수련원 그 안에 위치한 넓은 광장(광장에서는 인라인스케이트 등등을 타면서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이 수목원의 가치를 한층 높입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바라본 봄의 향연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숲해설가와 함께한 한밭수목원 숲체험

대성여중 1학년 학생들이 2007년 4월 26일 한밭수목원에서 숲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며 숲 체험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푸른숲선도원들의 활발한 활약에 여러 선생님들이 적극 추천하여 이루어진 숲 체험이 학생들의 감성 교육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을에는 2,3학년 학생들 전체가 숲 체험을 하도록 기획되어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푸른숲선도원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선도원 카드를 신청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글·사진 | 임홍택(대성여중학교 교사)〉

개구리 연못을 청소하자

창용중학교



우리들 연못

우리 학교에는 작년에 만든 근사한 연못이 있다. 겨울을 앞두고 금붕어와 미꾸라지가 살수 있도록 물을 채워주었다. 그래도 물은 흙의 미세한 틈새로 빠져나가 물이 줄어들었다. 겨울을 나면서 줄어드는 물과 바닥까지 물이 얼어 미꾸라지와 금붕어가 죽을까봐 걱정을 하였는데 그리 많이 남지 않은 물이지만 바닥까지 얼지 않아서 빨간 금붕어와 이들이 낳은 새끼들까지 죽지 않고 모두 살았다.

금붕어를 어항에 오래도록 키워보았지만 새끼를 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동네 꼬마들이 돌을 던져 맞치는 놀이를 하는 거친 환경이지만 자연에 가까운 환경속에서는 생식의 활동이 거스름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금붕어 연못이라고 부를까도 생각해보았다.

겨울을 지나는 동안 얼음이 어니 주변 동네 꼬마들의 좋은 놀이터였는가보다. 얼음을 깨기 위한 돌맹이와 여러 쓰레기들이 들어있었다. 심지어 나무를 지탱하기 위하여 받쳐 놓은 커다란 등근막대기까지 떠 다녔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하였을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지만 각종 과자 봉지까지도 연못의 한 그림으로 장식하였다. 개학하며 바로 치워야할까? 하는 생각도 하였지만 누군가 교사보다는 학생들이, 어른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치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차일피일 미루어 왔었다.

푸른숲선도원이 나서다

학교숲의 산수유를 시작으로 벚꽃, 목련, 명자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푸른숲선도원도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다. 이제는 너무 늦기 전에 연못을 청소해야겠다.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고 자 넣은 개구리알도 일부는 금붕어의 먹이가 되었지만 올챙이가 되어서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다. 물이 뒤집혀도 살만큼 컸으니 연못에서 자라다 겨울에 죽은, 금붕어들의 겨울 추위를 막아준 부레옥잠도 건어낼 때가 된 것이다. 심지어 연못에는 보도블럭까지 주워다 던져놓았으니 정리를 하고 물도 더 채워넣어 주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푸른숲선도원이 나섰다. 허리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갔다. 작년에도 사다 넣은 연을 담은 사각화분도 들어내고 바다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돌맹이를 끌어내고 나무를 건져내고 죽은 부레옥잠과 수생식물들을 뽑아내었다. 푸른숲선도원 아이들은 힘들고, 깨끗하지 못한 일이지만 나름대로 맡은 일을 열심히 하였다. 이렇게 저렇게 하라며 사진만 찍은 내가 고마워할 정도로 힘들어 정리하여주었다. 오히려 이런 일을 하게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하였다.

올해는 연못에서 다양한 유충과 애벌레들이 살며 우화가 일어날 것 같다. 서로 잡히고 잡아먹히는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며 잠자리의 우화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비가 오락가락하여 망설이게 하였지만 그 동안 언제 정리해야하나 하는 마음의 근심도 덜었다. 또 아이들 스스로 하였으니 연못에 대한 애착이 더욱 커질 것이다.

물이 있으면 새들도 찾아온다

연못에는 날라서 찾아오는 곤충이 많다. 이들로 인하여 물속에 사는 애벌레들도 많아진다. 금붕어, 미꾸라지, 잠자리유충, 하루살이, 물달팽이, 소금쟁이 그리고 올챙이, 개구리들이 살 때 어떻게 질서를 잡아갈까? 어느 한쪽은 멸종하고 어느 한쪽만 번성할까? 나비, 벌, 등에 등이 날아오는데 이들을 관찰하고 그림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정리하거나 전시회를 여는 것은 어떨까?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까?

생태계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의 삶에 대해서도 자주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된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좋은 삶일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올해는 새들에 대한 관찰도 해보고 싶다. 물이 있으면 새들도 많이 찾아온다. 보통 볼수 있는 새들은 참새와 직박구리, 까치 종류지만 우리가 알수 없는 시간에는 좀 더 다양한 새들이 찾아오리라 생각한다.

